

류현진, 양키스 상대 '메이저 60승' 키스

6.2이닝 4피안타 7K 1실점
토론토 타선 폭발 7-3 승리
박찬호 이어 두번째 60승
MLB 데뷔 8년만
평균자책점 2.69→1.89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완벽한 모습으로 시즌 첫 승과 빅리그 통산 6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일런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⅓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7탈삼진 1실점(비자책점)으로 팀의 7-3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1승(1패)을 기록한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2.92에서 1.89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은 2일 개막전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5⅓이닝 2실점, 8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번번이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토론토 타자들이 류현진에게 힘을 실어주며 첫 승을 도왔다.

지난 시즌까지 59승 35패를 기록한 류현진은 1승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로는 박찬호(은퇴)에 이어 두 번째로 MLB 60승 고지를 밟았다.

2013년 MLB 무대를 처음 밟은 뒤 8년 만이다. 2회 투구는 눈부셨다. 양키스 중심타선을 탈삼진 3개로 잡아냈다. 케리 산체스, 에런 히스, 루그네드 오도어를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산체스는 작구, 히스는 체인지업, 오도어는 컷패스트볼을 결정구로 활용했다.



류현진은 2회에 공 11개를 던졌는데, 이 중 10개가 스트라이크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토론토는 2회말 상대 선발 제임스 테일러를 상대로 2점을 뽑아냈다. 2사 만루에서 조시 팔라시오스가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5회부터는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그는 5회 1사 후 히스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오도어를 4-6-3 병살타로 유도하며 이닝을 마쳤다.

6회엔 2사 후 브루스에게 우중간 2루타, 레메이유에게 볼넷을 내줬는데 스탠턴을 투수 앞 땅볼로 유도해 직접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95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불펜 투수 데이비드 펠프스에게 공을 넘기고 임무를 마쳤다.

류현진은 작구 26개, 컷 패스트볼 33개, 체인지업 22개, 커브 14개의 공을 던졌다. 작구 최고 구속은 92.4마일(시속 149km)이었다.

토론토 타선은 2-0으로 앞선 3회말 랜달 그라치

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뽑았고, 4회말 마커스 시미언의 솔로 홈런과 블라디미르 게리로 주니어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면서 5-0으로 도망갔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내려간 뒤 불펜 투수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역전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의리

챔스필드 '슈퍼 루키' 빅매치

김진욱



KIA 이의리

10개 구단 팬들의 시선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쏠린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안방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시즌 3번째 맞대결을 벌인다. 이날 마운드에서 흥미로운 맞대결이 펼쳐진다.

시즌 전부터 KBO리그의 미래를 이끌어 갈 '특급 루키'로 주목받은 KIA 이의리와 롯데 김진욱이 팀을 대표해 선발로 마운드에 출격한다.

두 사람은 광주일고와 강릉고 시절부터 고교 최강 자리를 놓고 다투던 '좌완 라이벌'이기도 하다.

'남다른 떡잎'답게 캠프 때부터 실력을 발휘한 두 사람은 나란히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두 번째 등판에서 프로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KIA, 롯데는 물론 8개 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빅매치'가 됐다.

시범경기와 앞선 데뷔전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줬다. 두 특급 신인의 표정은 선발들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의리와 김진욱은 각각 지난 8일과 9일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키움을 상대로 프로 첫 무대를 소화한 이의리는 5.2이닝 2실점의 호투로 박수를 받았다. 이날 경기가 KIA의 5-3 승리로 끝났지만, 이의리가 승리는 가져가지 못했다.

이의리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타자들은 단 하나의 안타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상대의 제구 난조에 힘입어 겨우 1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6회 2사까지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으로 잘

오늘 KIA-롯데전

광주일고-강릉고 시절

고교 최강 좌완 라이벌 대결

지난주 나란히 프로 선발 데뷔

2000년대 13번째 고졸 신인 대결

던졌던 이의리는 이적후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박병호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1-2에서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잘 던지고도 승리가 아닌 패전 상황에서 물러난 이의리는 팀이 9회 뒤늦게 4점을 폭발시키면서 패전 투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화력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의리, 김진욱은 수비에서 올랐다.

역시 9일 키움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에 나선 김진욱은 박준태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경기를 시작했다. 1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김진욱이 2회는 연속 삼진으로 열었다. 그리고 프레이타스를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2회도 삼자범퇴로 끝냈다.

하지만 3회 3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김진욱이 흔들렸다. 4실점을 하며 흔들린 김진욱이 3회다시 삼자범퇴를 만들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 5회 다시 고난의 시간을 맞았다.

1사에서 박준태에게 우측 2루타를 맞은 김진욱이 김혜성을 상대로 뜬공을 유도했다. 하

지만 좌익수 전준우가 포구에 실패하면서 1타점 2루타가 됐다.

김진욱은 이후 볼넷과 좌전안타를 내주는 등 추가 실점을 하면서 첫 등판을 5이닝 5피안타 4볼넷 6탈삼진 6실점으로 마무리했다.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프로 첫발을 내디딘 두 사람은 2000년대 13번째 '고졸 신인 선발 맞대결'의 주인공이 된다.

2000년 8월 5일 조규수(한화)-이승호(SK)를 시작으로 윤길현(SK)-김진우(KIA·02년 6월 2일), 송창식(한화)-오주원(현대·04년 6월 3일), 오주원(현대)-송창식(한화·04년 7월 30일), 장진용(LG)-윤희상(SK·04년 9월 24일), 이보근(현대)-김명제(두산·05년 6월 1일), 한기주(KIA)-류현진(한화·06년 6월 23일), 양현종(KIA)-김광현(SK·07년 5월 25일), 이재학(두산)-안승민(한화·10년 8월 29일), 양창섭(삼성)-안우진(넥센·18년 9월 20일), 서준원(롯데)-김이환(한화·19년 9월 8일), 이민호(LG)-허윤동(삼성·20년 8월 26일), 김윤식(LG)-소현준(KT·20년 10월 3일)이 고졸 신인 선발로 대결했다.

한편 한기주와 류현진의 대결은 8.2이닝 1실점을 기록한 류현진의 승으로 끝났었다. 이날 한기주는 4.2이닝 2실점의 패전 투수가 됐다.

'두 좌완 특급' 양현종과 김광현의 첫 대결에서는 양현종이 1이닝 1실점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고, 김광현은 5이닝 6실점의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롯데 김진욱

'호랑이 군단'의 5선발 구도가 다시 안갯속에서 그려졌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엔트리를 바꿨다. 전날 선발로 나와 2이닝 7피안타 3볼넷 2탈삼진 6실점으로 부진했던 이민우를 말소하고, 남재현을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윌리엄스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후보군'을 같은 날 1·2군에서 동시에 가동 시키며 선발진 찾기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먼저 선발로 기회를 잡은 김현수(3.1이닝 6실점, 4자책점), 임기영(3.2이닝 8실점)의

'호랑이 5선발' 다시 안갯속

'부진' 이민우 엔트리 말소...맷 감독 "남재현·김현수 등 후보군"

출발이 좋지 못했다. 그리고 김현수와 자리를 바꿔 13일 선발로 나온 이민우도 제 몫을 하지 못하면서 엔트리에 말소됐다.

이민우가 빠지면서 18일 선발이 다시 공석이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아직 많은 게임이 남아있기는 하다. 남재현도 후보다. 김현수도 날짜를 맞

춰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경기에서 이민우에 이어 불펜으로 나선 신인 장민기와 장현식도 물론 후보군이다.

두 선수는 모두 선발 후보로 캠프를 준비했었다. 특히 장민기는 13일 경기에서 입단 후 가장

많은 2.1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가능성도 테스트 받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종 결정은 남은 경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 많은 선수가 있는데 지금 기회가 생겼다. 경쟁자 중 한 명이 자기의 것을 보여주고 한 단계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3일 단 2안타의 빈타에 그치며 0-8로 시

즌 첫 영봉패를 기록한 KIA는 화력 재점화를 위해 14일 타선에 변화를 줬다.

경험 많고, 감 좋은 김선빈을 최원준을 대신해 톱 타자에 세우고 중심 타자들의 자리를 하나씩 끌어올렸다. 타커-최형우-나지완에 이어 최원준은 5번에 배치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원준이 자신의 역할에 약간 부담을 느껴 해서 뒤로 배치했다"며 "최원준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거의 1년 만일 것이다.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감각을 찾아주는 의미에서 뒤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